

# '실용성'에 눈돌리는 프랑스의 사전

## 날권짜리 소사전 형태 인기 끄는 가운데 단행본형 시리즈도 선봬

이희재

번역가

프랑스 출판 협회가 공시한 출판 판매 통계의 작년 자료에 따르면 '사전·백과사전' 분야는 전체 매상의 약 20%로 '문예일반'의 15%를 능가하여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사전·백과사전' 분야에는 데이터 집계시 문고판 소사전이나 소백과 출판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프랑스의 최근 출판 경향이 대형전집 백과사전보다도 대량 판매를 노리는 학습·교재형 문고판 소사전 시리즈 간행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분야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진다.

그럼 프랑스 독자는 현재 어떤 사전류를 원하고 있을까? 한 대형 출판사의 사전 편집 담당자에 따르면 "TV나 잡지 등 시각 매체에 익숙해 있어 아무래도 하나의 주제를 포괄적이고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는 콤팩트한 실용편람용 사전을 원한다. 더욱이 경기침체와 불황 탓에 월부 대형전집물을 부담스러워하는 독자들이 테마별 1권짜리 소백과를 즐겨 찾는다"고 한다.

프랑스에는 현재 약 8종의 대백과사전이 시판되고 있다. 라루스사가 1985년에 출판한「그랑 디크쇼네르 위니베르세르 라루스」전 15권을 필두로 「앙시클로페디아 위니베르사리스」(전 30권), 「앙시클로페디아 제네랄 아세트」(전 19권) 등이 있는데 매년 최신정보의 보완판을 간행하면서 판매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3년간은 날권으로 된 콤팩트 백과사전류가 건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로베르 라퐁사가 매년 개정 간행하고 있는 실용백과「퀴도」는 매년 48만부씩 팔리고 있다. 라루스사가 작년에 간행한「메모 라루스」사전, 보르다스사의「랑시클로」, 앙시클로페디아 위니베르사리스사의 신년판 補遺「위니베르사리아 1991」 등은 모두 칼리 인쇄로 현대적 주제를 잘 정리한 날권 소백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테마별 단행본을 시리즈로 엮어 간행중인 백과사전류도 많아 현재 17종에 이른다. 갈리마르사의「데크베르트」시리즈는 1986년에 창간되어 현재 100권 이상 나왔다. PUF사의 유명한 크세즈 문고는 既刊 2700권에 이르지만 1941년 창간 때부터 '포켓판 백과사전의 축적 간행'이라는 부동의 경영 방침 아래 지금도 매년 120종의 신간을 간행하고 있다. 「리브르 드 포슈」문고를 통해 작년 10월 「오늘의 백과사전」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창간, 문고판보다

큰 판형으로 매년 15점씩 퍼낼 예정이다. 각각 제목은 가령 「지리」 「과학」 「프랑스 문예」 「예술」 등으로 각각 1천여쪽의 충실한 내용이다.

갈리마르의名著「플레이어드 백과사전」은 레이몽 쿠노가 1956년 창간한 학술연구서의 백과총서로 현재 46권까지 나왔다. 최신간은 「세계풍속사」(전 2권)이며 금년에는 「유럽-민속과 문명」(전 3권)이라는 대형 기획에 착수한다. PUF사는 세계의 학자들을 흥분시킨 장대한 백과사전 「세계철학백과사전」(전 6권 중 3권 간행)을 계속 내고 있다. 제1권은 89년에 나와 2년 만에 4천부를 완매, 중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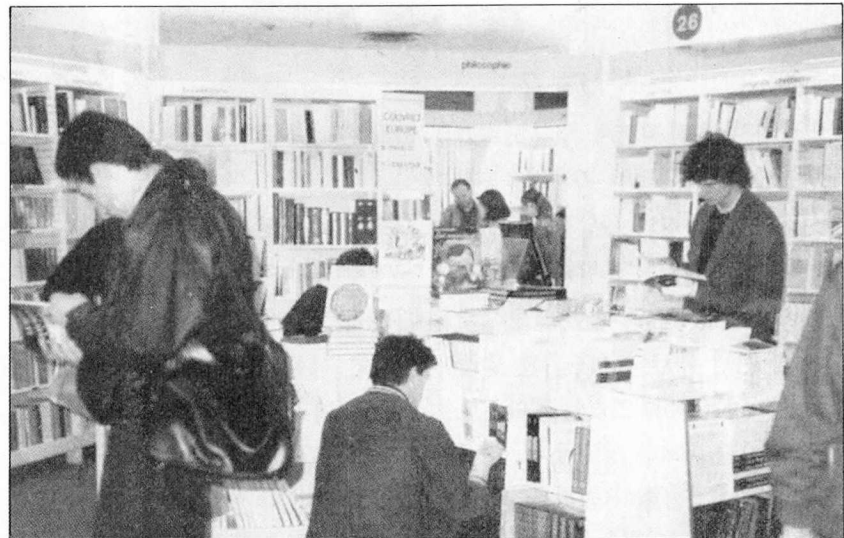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최근 몇 종의 대백과전집이 간행되었거나 개정판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다. 그러나 사전 제작을 위해 편집부를 급조했다가 책이 완성되면 해체하는 과거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사전 특히 백과사전의 생명은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에 있다. 그것이 없으면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어 만든 책이 10년만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백과사전 제작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분야별 전문사전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획으로 연결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백과사전의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출판 붐과 우려하는 舊蘇 출판인들

교과서를 갖지 못한 학생, 아동서를 못 읽는 어린이, 전공 분야 책을 못 구하는 전문가. 지금 구소련에서는 이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의 건전한 발전, 계몽과 교육을 위해서는 이들 출판물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영리를 앞세운 책들에 이런 책들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생활필수품이 동이 나듯 이런 책들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는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것이 양식있는 출판관계자들의 심각한 고민이다. 그래서 그들은 격동과 혼란의 와중에서도 "책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고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부심중이다.

구소련에서 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매우 주요일 모스크바의 타스 통신사 홀에서 책 매매시장이 열린다는 데서도 간접 확인된다. 거래단위는 500부에서 5만부로 솔제니친의



프랑스에선 최근 콤팩트한 실용편람용 사전이 인기가. 사진은 파리의 프낙서점.

작품집에서 브로크하우스-에프론 백과사전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책을 망라한다. 이런 서적거래소는 모스크바 말고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지에도 있다.

소련보다 앞서 시장개혁에 착수하여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도 출판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깊은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3류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1985년 이후 盲文출판사, 민족출판사, 중국사회과학출판사, 과학출판사 등 4곳만 제외하고 독립채산제를 일률 적용한 결과 모든 출판사들이 학술서 출판을 꺼리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게다가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면서 개인독자의 도서구입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서 구입이 주종을 이루는 과학·기술 분야직 종사자 중 최근 들어 사전과 외국도서를 주로 구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는 중국 학술출판의 열악한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늘어나는 장서수를 감당 못해 새로 엄청난 규모의 국립도서관을 건립하는 판에 목전의 경제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국 당국의 근시안적 정책이 빚은 결과인 것이다.

아무리 시장경제라고는 하지만 "출판을 여는 산업 분야와 동시해서 안된다"는 사실을 이들 두 강대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깨닫고 있다. 구소련과 중국은 그러나 기초학문과 인구는 든든한 자산을 각각 갖고 있어 충분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시설의 미비와 전무하다시피한 정부의 지원 탓에 홀로서기를 강요받아 1회용 변역소설에

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국내 출판계는 재생의 발판이 될 외적 여건을 별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듯싶다.

### 불황을 모르는 英 워커북스

1991년의 영국 출판계는 영국 경제 전체의 침체를 반영한 출판 및 인쇄업계의 불경기와 대량하고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아동서전문 출판사 워커북스는 91년 상반기의 영업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100만 파운드(약 150억원)를 기록해 주목을 끌었다.

이 급성장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워커북스 간부들은 한결같이 아동서 전문출판사로서 책의 질을 중시한다는 것, 수익은 모두 출판활동에 재투자한다는 것, 따라서 재능있는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이유로 꼽는다.

이것은 사실 작년 6월 타계한 창립자 세바스천 워커의 출판신념이었다. 워커는 작품만 뛰어나면 출판 후 몇 년 뒤에 자금이 회수되어도 좋다는 자세로 출판에 임했다. 그 성과가 지금 역력히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까지 기간 목록에 오른 것은 4천권인데 여기서 연간 매상의 60%를 올리고 있다.

그중 가장 인기있는 책은 4년전 간행되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마틴 헨즈포드의 「월리를 찾아라!」라는 그림책 시리즈. 현재까지 5권이 나왔는데 전세계적으로 1600만부나 팔렸다.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여행정보서 '레츠고' 시리즈.

위커북스는 작년 10월 위커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이를 위한 잡지 「SNAP」을 창간했다. 위커북스가 거느리고 있는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를 동원한 읽을거리와 퀴즈가 가득한 잡지다. 창간호는 4만부였는데 조금씩 부수가 늘고 있다. 위커북스는 앞으로 외국 출판사와의 공동 출판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금부터 50년 전에 나온 아동서가 지금도 한 해 몇만 부씩 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문제의 책은 앨버트 휘트먼社가 펴낸 「유개화차의 아이들」(The Boxcar Children).

이 책은 1988년 하드커버로 35000권이 팔렸고 이듬해 최초의 페이퍼백판이 나오자 그해 모두 17만권이 팔렸다. 여기에는 스크라스티 아동 북클럽의 엄청난 판매부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모두 18권으로 된 이 시리즈는 버려진 유개화차에서 생활하는 4명의 고아가 겪는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추리적 기법으로 그린 소설들이다. 지난 1979년 89세를 일기로 타계한 저자 거트루드 첼들러 위너는 코네티컷 주에서 국 민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60살 때 첫작품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의 꾸준한 인기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주제의 보편성에 있다고 스크라스티 부회장 바바라 마커스는 말한다.

휘트먼사는 당초 스크라스티에 북클럽 판권을 넘기길 주저했다. 「유개화차」 시리즈의 하드커버판 매상이 줄어들까봐서였다. 특히 첫권은 1980년의 12,600부에서 1988년의 35,000부로 꾸준히 판매부수가 늘고 있었다. 하지만 정

작 스크라스티 북클럽판이 나오자 1980년 각 권 평균 1800부에 불과했던 「유개화차」 시리즈의 판매부수가 50,000부로 경중 뛰었다. 계속 읽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이 책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가는 「유개화차」 시리즈에 나온 요리를 죽 모은 「유개화차 아동 요리책」이라는 책이 자그만치 2만부 팔렸다는 데서 잘 확인된다. 앨버트 휘트먼社는 원활한 도서공급을 위해 창고를 대폭 늘려야 했다. 미국의 출판인들은 좋은 책의 수명은 아동서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과 북클럽의 위력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 하버드 아성에 도전하는 버클리

지난 30년 동안 하버드 스튜던트 에이전시가 만들어온 레츠고 시리즈(현재 세인트 마틴 프레스 발행)는 짝 값으로 세계일주를 떠나는 학생들의 필수 휴대서였다. 작년 한 해만도 레츠고 시리즈는 모두 60여만권이 팔렸다. 그러나 동부의 명문 하버드에 맞서 서부의 명문 버클리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새로운 여행서가 올 가을 포터社에서 나와 뜨거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15권으로 나와 있는 레츠고 시리즈는 매년 여름 120-160명의 학생들에 의해 수정되는데 이들은 봄학기 끝날자마자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아있는 정보를 가득 안고 온다. 이들은 갖고온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늦어도 10월까지 각각 할당받은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다. 그러나 포터社는 아예 매킨토시

컴퓨터를 버클리대에 설치하여 학생들 선에서 편집을 완결지를 계획이다.

포터社가 버클리 시리즈와 하버드 시리즈의 차이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공립학교인 버클리대 학생들이 하버드대 학생들에 비해 집안 형편이 어렵고 이 점이 절약형 여행을 지향하는 학생 독자들에게 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멕시코의 어느 도시에 게이가 바가 있다든지 동유럽의 어느 호텔에서는 흑인을 안 받는다든지 하는 진짜 살아있는 정보를 듬뿍 담을 생각이다.

### 어린이를 위한 정보지 인기

일본에서는 얼마 전부터 서점이나 역 가판대에서 어린이 상대의 정보지와 시각표가 팔리고 있다. 핵가족에서 레저 활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어린이와 「독신기분」으로 돌아가 아이와 함께 쇼핑과 영화를 즐기고 싶어하는 젊은 엄마들에게 타게트를 맞춘 것이 적중한 것이다. 올 가을부터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고 기업의 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어린이 상대 정보지의 수요도 늘어나리라는 전망이다.

「피아」가 작년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창간한 「어린이 피아」는 현재 30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AB판 190쪽. 봄, 여름, 겨울 3회 발행인데 발매 한 달만에 모두 매진될 정도다. 겨울호에서는 창간호에 비해 과자와 장난감 회사 등의 광고가 5배로 늘었다. 올 3월에는 관서판도 발행할 예정이다.

내용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레스토랑, 호텔, 콘서트, 영화, 스포츠 안내, 병원 안내와 여행 정보도 있다. 편집부는 3명이고 편집장은 5세 남아의 엄마다. 이시이 편집장은 「엄마가 아이와 가볍게 외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경쟁지가 여럿 생길 조짐이 있어 본격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말한다.

철도회사인 JR東日本은 제작년부터 「어린이 시각표」를 내고 있다. 봄, 여름, 겨울 연 3회, 매호 약 10만부가 팔린다. 시각표 외에 만화, 관내 지사와 역에서 제공하는 충실한 여행 정보, 철도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한편 4월부터 국민학생들에게 실시되는 성 교육 교과서의 미진한 내용에 불만을 가진 교육평론가에 의해 스웨덴의 성교육 그림책이 일본에서 번역되었다. 1977년에 출판된 「이다

와 펠과 미니문」은 독일 아동도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은 롱셀러.

이다와 펠은 남매이며 미니문은 태어날 아기의 애칭이다. 두 남매가 양친에게 아기가 태어나는 원리와 남녀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과정을 그렸다. 임신한 엄마에 대한 보살핌과 부모의 애정부터 이혼과정과 양자를 들이는 가정의 존재까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은 세부까지 자세히 그려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육민이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아 그동안 번역을 미뤄왔는데 기왕 성교육을 실시한다면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번역을 끝냈다고 한다.

### 일본인이 본 일본의 자화상

격동하는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일본의 위상과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무게있는 책들이 일본에서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본전략 선언-시빌리언 대국을 지향」(講談社), 「격동하는 세계와 일본 경제」(TBS브리태니커), 「세계가 원하는 일본 개조」(朝日新聞社) 등이 화제의 책이다.

「일본전략선언」은 일본국제교류센터의 후원으로 7인의 전문가가 해외 전문가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정책 제언집이다. 「기술 헤게모니」 「통화전략 이니셔티브」 「세계무역 룰메이커」 같은 자신감에 넘친 내용 일색이다.

「격동하는 세계와 일본 경제」는 리코대 경제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논문집으로 「제3세계의 장래와 일본의 역사적 경험」 「EC와 일본」 「중국의 근대화 정책을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제문제-소련의 경우」 「세계 경제의 격동과 일본의 역할」 같은 논문에서 동서남북의 제 문제를 다채로운 시점에서 조감한다. 일본 경제가 취약했던 시기를 되짚어보는 책이어서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를 던져줄 만한 책이다.

「세계가 원하는 일본 개조」는 자크 아탈리(프랑스), 게오르기 아르바토르(러시아), 이광요(싱가포르) 등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참석한 심포지엄의 요약집으로 가장 큰 주제는 「국제질서」 「새로운 국제 시스템」의 탐구와 일본의 역할이다. 일본의 정치 풍토에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꼬집은 심포지엄이라고 할 수 있다.